

<경기 초수 합격 수기>

안녕하세요. 이번에 경기초수로 합격한 사람입니다.

2020년도에 임용을 준비하면서 합격수기에선 무슨 말을 써볼까? 또 어떤 말을 하면 시험 준비 하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하면서 행복 회로를 돌렸던 것 같습니다.

크게 목차를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한 내용들만 보시고 필요 없다가는 내용은 스킵해주세요.

1. 공부성향
2. 공부시간
3. 공부방법
4. 공부도구
5. 2차 준비
6. 정서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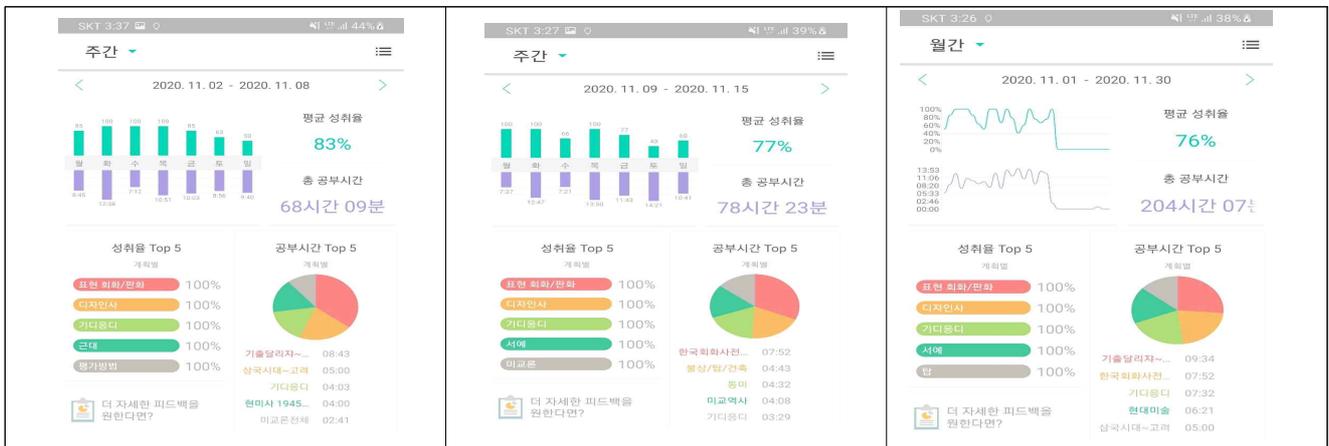
1. 공부성향

우선 전 ENFP예요. 따라서 엄청 분석적이기도 계획적이기도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즉흥적인 성격이고 쉽게 질리는 스타일이여서 임용고시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디. 그래서 스테디 플래너 절대~~ 못 쓰는 타입 이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세워야 공부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제가 극복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극복방법: 어플활용. 언급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토도**이라는 어플을 활용했습니다. 많은 공시생 분들이 **오프트**를 많이들 사용하신다고 들었는데 이게 남들이 하는 시간을 알 수 있다고 하여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운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토도**은 내가 매일 하는 계획/주간계획/월간계획(그래프)로 알 수 있고 제가 한 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일 목표를 달성하고 마무리 멘트에 따라 다음날 시가 피드백을 해줘요.(주로 응원이었어요ㅎㅎ) 그럼 그 말에 따라 에너지 받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넘 좋았어요. 그리고 손으로 플래너를 쓰고 스탱워치로 시간 재지 않아서도 좋았고요.

예시) 실제 사용한 화면(막판에 공부시간이 좀 있지만, 그전 까지는 한 주에 58시간도 공부 못했어요.)



2. 공부시간

어플에 추가해 놓은 사진처럼 안될 때는 7시간도 하고 잘될 땐 10시간 넘겨서도 하고 거의 보통 8~9시간 정도한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혹시나 많이 시간 투자해야 잘 하는거 아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대비 효율적으로 쓰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10시간 이상 하는 데 4시간은 딴생각, 단순히 필기하기 등을 한다면 6시간을 공부하는 셈이겠죠? 저는 공부하는 동안은 딴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ㅎㅎ
따라서 공부량=시간이 절대적으로 비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중력 있게 공부하세요. 그리고 많이 시간 못 채웠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할 분량이 다 끝났다면 괜찮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가혹하게 몰아세우지 마세요~! 못했더라도 나를 다독여주세요. 그래야 내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3. 공부방법

1) 전공 서브노트

우선 전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았습디다. 그럴 시간도 없고 예쁘게 할 자신이 무엇보다 없었습니다. 그치만 한국 조형사파트는 너무나 취약하여 수기로 하나하나 도판 오려가면서 서브를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 자잘한 필요한 것들은 자료로 만들어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용만 보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나머지 부분은 단권화를 진행했습니다. ㅇㅈ 심화에 필수 자료를 첨가하여 추가 추가했어요. (기본서에 있는 중요 내용 복사해서 끼움) + ㅈㅈ디자이너사 + ㅈㅈ서미사, 미교론 + 합격생이 정리한 서브노트 등등 본인에게 맞는 자료로 보고, 자료가 많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니 꼭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만 채워넣길 바랍니다. 전 필요한 자료들만 주려서 넣었습니다.

2) 전공 기출분석

기출분석은 2002년부터 2020년도까지 우선 출력한 다음에 기출표(교육과정/미교역사/미교이론/표현/디자이너사... 등등)대로 하나 하나 잘라서 모아놓았습니다. (2주 걸림) 그런다음에 연도별 순서대로 잘라놓은걸 복사를 진행했어요. 오린것은 또 단권화한 내용에 붙일려고요.(근데 결국 다 못붙임^^) 굳이 이렇게 하는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π-π 넘 시간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렇게 나눈 것을 기준으로 꼭 연도별 정리하고 빈도수별 중요도를 파악했습니다.

*혹시 기출자료 한 번에 파트별로 나눈 것 말고 연도별 모은 합본이 필요하다면 매일주세요^^.

예를 들어 서미사 기준이라면 고전(로코코이전)에 많이 나왔던 사조는 르네상스/바로크 인데 르네상스가 나온지 오래된 것을 파악하고 르네상스의 베네치아vs 피렌체 나을법하구나 했는데 2021년도 기출로 나왔죠!

<서양미술사 사조별 빈도수>

전통미술	근대미술	1945이전	1945이후	표모
15c 북유럽미술	낭만주의	20c 추상미술운동	개념미술	1960년대 이후 현대 미술 전개 과정
그리스(헬레니즘)	낭만주의	극사실주의	중간주의	고구려고분벽화
라파엘전파	낭만주의	다다이즘	네오다다	그래비티
로마	사실주의	다다이즘	네오다다	극사실주의
로마	사실주의	다다이즘	르네상스	뉴미디어아트
로코코	사실주의	라이트아트	미니멀리즘	대지미술
로코코	사실주의	멕시코미술	미니멀리즘	대지미술
르네상스	상징주의	미래주의	미니멀리즘	미디어아트
르네상스	신고전주의	미래주의	미니멀리즘	미디어아트
르네상스	신인상주의	야수파	미니멀리즘	비디오 아트
르네상스	신조형주의	오프리즘	아르테포베라	비디오 아트
르네상스	아르누보	요소주의	행프로델(서양)	비디오아트

이런식으로 필요한 것 순서대로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빈도수를 파악하고 중요도 위주로 공부 및 연도별로 어느 부분이 최근에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지문들을 정리해보고 나올 내용들을 추려서 보았습니다.

각 파트별 동일. 다만 다 못 끝냈어요. 시간이 없어서 표현/ 서미사/ 조각사 부분만 중점적으로 보았답니다. 다시 공부한다면 기출을 좀 더 꼼꼼히 보고 외우고 응용 가능성을 더 파악할 것 같아요.

3) 전공 회독방법

제가 정의하는 회독의 기준은 전체 범위를 눈으로 훑는 것이 아닌 내용 이해+ 암기가 회독인 것 같아요. 따라서 파트별 최대 2주 정도 안에는 끝냈던 것 같아요.

분석적이지 못한 성격이어서 문장하나하나를 곱씹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남아요. 대신 전 전체흐름은 확실히 이해하고 꼼꼼히 보려고 했습니다. 동기들은 내용을 하나하나 곱씹고 분석했다면 저는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조금 더 빨리 회독을 진행했습니다. 전체 범위> 세부 범위로 점차 범위를 좁혀나갔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몇 회독을 했다고 기록하지 않았습디만, 한 5회독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4) 전공 필독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독서를 꼭 읽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있을 때 필요한 부분만 읽으세요. 라고 답변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전체 내용을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제가 책을 한 번 쪽 읽어봤을 때 정리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남지 않아서예요. 기출을 분석하시면 알겠지만 나오지 않는 것은 안 나오는 데 다 이유가 있는 것이예요. 예를 들면 미니멀리즘이라면 누구나 다 중요한 사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기본서나 강사들 자료에선 부분적으로 설명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그 주변부를 알기 위해서 필독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조각사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한눈에 읽는 조각사 너무 추천드립니다!!!! 사신다면 꼭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좋은 이유는 서양미술사의 조각사 파트는 이 책에서 나온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저는 필요한 내용은 발췌해서 단권화한 자료에 추가해서 보았습니다. 그 외에 읽으면 좋은 도서는 연락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필독서는 전 되도록 다 구매하는 편이어서 세계미술용어사전/ 현대미술용어사전/ 디자인사전/ 한국회화용어사전 등 모두 있었지만 제일 도움 되었던 것은 현대미술용어사전과 한국회화용어사전이였어요. 사전이 좋은 점은 명확한 개념이 잘 정리되어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사전만 회독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알아야하는 것들만 정확하게 외우세요. 여러 번 회독한다면 눈에는 익겠지만 외우지 않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도 넘 오래 걸릴 것 같아요.

5) 전공 스터디

음 저는 우선 모르는 사람과 스터디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스터디도 몇 번 진행해보다가 잘 운영이 안되는 것 같아서 포기했어요. (장의존에다 계획적이지 못해서요.) 대신 막판에 1-2달 정도는 동기랑 표현 스터디를 꾸준히 운영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스터디 안 맞는다면 굳이 진행하지 마세요. 생활 스터디 등은 할 수 있겠지만 모르는 타인과 스트레스 받을 바엔 안하셔도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ㅎㅎ꼭 필요할 경우에만 하세요!

6) 교육과정

교육과정 다 외웠는가? 라는 질문에 전체는 다 못외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진짜 매일 1시간씩 투자했는데 결국 전체 다 못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쉽게 전공에서 기능 부분이 나왔지만, 전 막판에 기능을 외웠기 때문에 운 좋게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니 샘들은 꼭 외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7) 교육학 공부

아 저는 사실 교육학 공부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1-2월에 처음 직강 들으러 가는 데 뭐야? 모르겠어. 이 많은 양을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도판도 없고 줄글에 내용이 너무 재미없다고 생각해서 좌절했었어요. 그래서 1-2월에는 ㅇㅈㅇ 선생님 듣다가 3-4월에는 ㄱㅇ강의 듣고 방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5월에 ㄱㅈㅈ 선생님의 핵심썩썩 교재를 가지고 쪽 돌렸고 마지막까지 이 교재 들고 들어갔어요. 진짜 이 교재로도 교육학 공부 충분한 것 같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ㅎㅎ

그렇게 교육학 공부는 5월부터 월화수목금 5일 동안 매일 9시부터 2-3시간씩 진행했습니다. 교육학 공부가 너무 싫었기에 이때 같이 교생했던 선생님과 아침에 독서실에 있는 스터디룸에서 만나서 서로 대화하면서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했던 이유는 1-2월에 몰아서 교육학 내용을 하기 너무 싫었기 때문이에요. 혹시 교육학 공부가 1-2 몰아서 하시는 게 맞다면 그렇게 진행하시고, 혹시 저처럼 교육학 공부가 싫다는 선생님들 계신다면 매일 하시는 것 추천 드려요. 점차 회독할수록 내용이 자연스럽게 암기되고 입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답니다. 특히 저는 나중에 행정파트가 너무 재밌어지더라구요.

처음에는 버거울 수 있지만 내용 양적으로는 전공에 비해 적다는 것이 9-10월쯤 가시면 깨닫게 될 수 있을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워낙 교육학을 싫어하다보니, 진짜 싫어하는 공부방법인데 두음법칙(앞글자 따서 외우기)으로 외웠는데 나중에 이 두음법칙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외워지지 않는다면 이 방법 추천하겠습니다. 전공 표현 파트의 디자인도 몇 개는 두음법칙으로 외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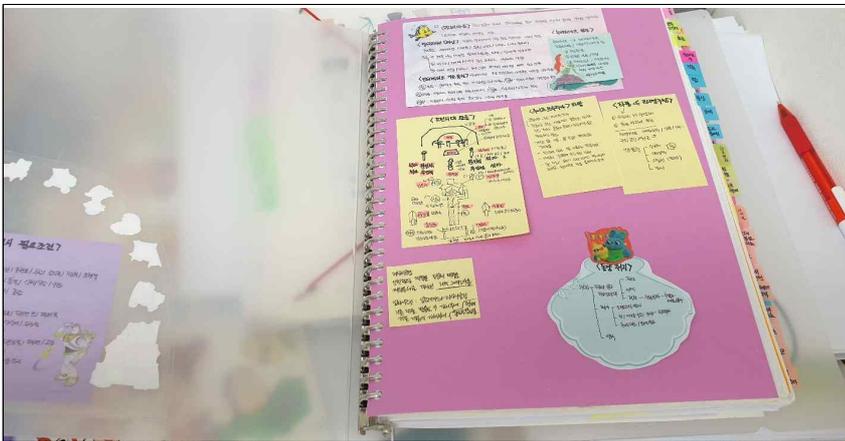
4. 공부도구

공부는 장비빨이라고 저랑 같이 스터디 했던 교생선생님이 얘기해주셨는데요. ㅎㅎ 공감하는 말이에요. 필기구나 노트 등 예쁘지 않아도 공부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저는 장비를 꼭 갖춰서 했습니다.

1) 필기구

우선 기본 필기구는 제트스트림 0.5 삼색 펜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것들도 써봤는데 잘 맞지 않아서, 이걸 꾸준히 썼습니다. 그거랑 지워지는 프리션 펜이랑 형광펜 사용했어요. + 마일드라이너 회색, 노란색, 연두색 사용했습니다. 연필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90% 이상 펜으로만 사용했습니다.

2) 자료철



이런식으로 링철되어 있는 파일을 사서 타공기로 구멍을 뚫어서 진행했어요. 그 외의 필요한 자료는 타공기와 루즈링으로 철해서 진행했습니다.

3) 포스트잇

포스트잇은 연두색, 노랑색 위주로 사용하였고, 디즈니를 좋아해서 디즈니 메모지도 종종 사용했습니다.

4) 표지

저는 표지를 다 일일이 만들어서 제본했어요. ㅇㅈ 교재의 경우는 목차와 표지를 직접 만들도 각 파트별로 나누어서 진행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5. 2차 준비

2차 준비는 체력싸움 멘탈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말을 극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쌤들 꼭 체력 비축해두세요. 작년에는 진짜 코로나19 때문에 초수쌤들이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1차 끝나고 바로 쉬지도 못하고 그 다음주 월요일부터 약 2주간 실기학원을 다녔습니다. 경기도는 4과목이기에 4과목을 모두 준비한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집합금지로 인하여 실기학원을 못다니게 되는 상황도 생기고, 4과목에서 2과목으로 줄어 선택하는 상황도 생기고 여러 변수가 많았습니다.

2차는 정말 변수가 많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점수를 뒤집을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변별이 너무 심합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느 하나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실기든 면접이든 중상이상은 하셔야 합격하실 수 있어요. 1차 점수가 아무리 높더라도 뒤질 할 수 있는 게 경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1차 끝난 후 합격여부를 떠나 2차 준비 꼭 하세요. 나중에 2차 관련 얘기를 더욱 나눌 기회가 있다면 좋겠네요.

6. 정서관리 및 하고싶은 말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한 편이에요. 슬럼프가 오거나 울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것은 공부가 좋아서라기보다 늘 잘 될거야라고 스스로 다독이기도 하고 좋은 말과 생각은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이후의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올해가 마지막이다 내년은 없어! 이런 마음으로 했어요. 물론 독한 사람은 아니기에 마음은 이렇지만 계획적이고 모든 인연을 다 끊고, 핸드폰 끊고 그렇진 않았어요. 대신에 대학원 동기들과는 주기적으로 얘기를 했고, 추석에도 시골내려가서 엄마 일도 돕고, 중간 중간에 같이 공부하던 동기와 놀러가기도 하고 밥도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해소하기도 하고요. 스트레스를 최대한 받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1) 초수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처음 시작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저처럼 게으르고 무계획적인 사람도 해냈어요. 처음 접하는 많은 양과 해야할 것들에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그 처음 시작이 나이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더욱 더 부담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반드시 해낼 수 있어요. 처음이라고 해서 절대로 부족하지 않아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잘 해낼 수 있어요. 멘탈 관리와 정서 관리 잘하시면 그 누구보다 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스스로를 믿으세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머리가 좋아서도 열심히해서도 아닙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임하세요. 하루하루 지켜나가다 보면 합격이 있을 것입니다. 힘내세요!

2) N수생 + 최탈 분들께 하고 싶은 말

우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N수 이상이면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1년 혹은 그 이상을 달려오신 자신에게 셀프로 토닥여주세요. 누군가는 붙고 누군가는 떨어지는 어찌보면 잔인한 시험이 임용시험이라고 생각해요. 붙

은 사람들과 떨어진 사람 모두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다만 그 기회가 아직 오지 않아서예요. 절대로 스스로 자책하지 마세요. 시험 준비한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버텨주었잖아요. 다시 한 번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험은 포기하지만 앎 누구든 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처음 왜 교사를 하고 싶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장 마음이 아플 최탈분들에게, 2차 발표를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초조하고 힘들었는지 공감합니다. 그 결과가 비록 떨어졌을 지라도 토닥여주세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을 그 시간들이었는지 상상도 하기 힘들지만 마음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다시 도전하실 용기가 생긴다면 다시 시작해 보세요. 그 아픔이 에너지가 되어서 최종합격까지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팠던 경험만큼 다시는 아픈 경험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제일 많이 했던 말이 할 수 있어!입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작년 한 해는 그전에 논문을 쓰긴 했었지만 논문제출과 졸업, 코로나19 까지 상황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위기는 또다른 기회다 라고 생각하며 공부했습니다.

너무 힘들땐 혼자서 버티지 말고 연락주세요~큰 용기는 못 드릴지라도 계속 응원해드리겠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을 응원하는 누군가가 늘 곁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믿고 해낸다면 모두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1년은 정말 긴 레이스예요. 저처럼 단거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해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힘내시고, 늘 응원합니다. 2021년도에도 화이팅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riomj17@naver.com 여기로 연락주세요.^^

+저는 저만의 동기를 갖기 위해 1월부터 공부한 순간에 불펜심을 모았습니다. 얼마나 썼는지도 궁금했고 며칠에 한번 펜을 쓰나 궁금했습니다. 왜냐면 워낙 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어서요. 첨부합니다.

